

“노사민정 힘 모아 새로운 광주형일자리 발굴해야”

한국노총, 광주형일자리와 광주의 미래 관련 토론회

상생형 일자리 위해 저임금·열악한 복지 개선 시급
현대차와 지방정부·중앙정부 모두 책임성 강화를

광주형일자리가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제2기 광주형일자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노동자들이 애초 계획과 다른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불만을 제기한 데다, 이중 140여 명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광주형일자리는 정책으로서 노동조합이 일자리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노사와 민정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이끌 미래를 생각한 사람들이 기획했던 '새 지역사회 발전 모델'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광주형일자리의 문제점으로 ▲무노동·무급노동·무과업의 권리 없는 사업장 출현 ▲주거 기반 사회 정책 실패 ▲형식적 노사민정 협의회 등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2기 광주형일자리 기획에 나서야 한다"며 "GGM, 현대차는 더 이상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아웃사더가 아니라 책임 있는 내부자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독일 폭스바겐 아우토 5000' 모델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형일자리는 아우토 5000과 달리 '노사'가 없는 투자 협약과 공적 지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노사 상생이 비교적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우토 5000은 자동차 제조기업 폭스바겐사가 경영 압박에 처하자 임금이 저렴한 동유럽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했던 상황에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공장 이전을 막는 등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노사 상생 우수 사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좌장을 맡고 박미정 광주시의회,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 지방근 조선대 교수, 이재현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 위원, 유미현 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광주형일자리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근 교수는 "광주형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 의지가 약했던 현대차가 수익 창출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요소를 규명해야 '모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등과 함께 '광주형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전력거래 실증’ 분산에너지 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전남도 ‘에너지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

전기 생산자와 인근 전기 소비자 간 전력거래를 실증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자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본격화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전남도의 '소규모 분산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산자부는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같은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전기 생산자와 인근 전기소비자 간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에 나서게 된다. 향후 개인 간 전력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자가 태

양광발전 소비자(이하 전기생산자)는 남은 전기를 팔 수 있고 전기소비자는 전전과 비교해 저렴한 전기를 구입해 살 수 있게 되는데, 전남도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태양광발전 등 분산에너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력거래 기반 통합 관제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대표산업에 AI 기술 융합 나선다

컨소시엄 구성...6월 3일까지 신청
기업 과제 당 1억 4000만원 지원

광주시가 지역 대표산업인 반도체, 에너지, 헬스케어,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등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고, 혁신적인 AI+X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에 나선다.

22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에 따르면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역 대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융합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적인 기반 확보를 목표로 AI 기반 신제품·서비스·솔루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I사업단은 인공지능(AI)과 지역 대표 산업을 융합한 제품·서비스·솔루션 개발에 나설 2개 내의 기업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최대 1억 40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지사, 연구소를 두고 있

는 AI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데이터산업,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가전, 스마트부품 분야와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6월 중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은 6개월 동안 광주 첨단 3지구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융합 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고,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http://www.aica-gj.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과제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AI+X 사업을 통해 대화형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콘텐츠 등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도 사업을 통해 AI 기술과 지역 산업을 융합한 혁신적인 AI 제품과 서비스 제작을 지원해 광주 지역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뿌리산업 기업 첨단디지털화 전환 지원

산자부, 올해 실증사업 3곳 선정
생산성 개선·불량률 감소 등 효과

광주시가 지역 뿌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로봇 도입 등 첨단 디지털화 전환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첨단제조로봇실증사업(지역실증형)' 공모사업에 ㈜효광, 남도금형주, 대한공조 등 지역기업 3곳이 최종 선정돼 관련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제조로봇실증사업은 고강도·고위험이 있는 작업기피 공정 등 제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도입해 실증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공정모델 실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 지원으로 지난

해에도 산업부의 '제조로봇플러스사업'에 광주업체 4곳이 선정돼 로봇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들 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46% 향상되고 불량률은 평균 74% 감소했다.

현재 광주지역 뿌리기업은 자동차·가전제품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소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공정 등에 따른 근로피로 등으로 구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첨단 제조로봇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 전반에 제조로봇 활용이 활성화되면 로봇시스템 부품 제조 및 서비스기업 창업과 기업 유지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경제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을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海 風

樂 風

바람따라 풍류따라

2024

법성포단오제

2024.6.7.~6.10.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후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군수협, 콜비글농업

영광방문의해 Visit Yeonggwang